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환율은 직전영업일 대비 2.10원 내린 1,071.30원으로 마감
-------------	--------------------------------------

이날 환율은 파월발언 경계 완화에 직전영업일 대비 2.10원 내린 1,071.3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오전중에는 달러약세흐름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흐름으로 1,068원대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하였지만 1,070원 부근에서 수급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상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영향은 크지 않았고 오후로 들어서면서 1,070원 아래서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우위를 보였고 역외투자자의 숏커버가 유발되면서 1,073원대까지 상승세를 이어나갔지만 상승폭을 크게 키우지는 못하고 전일대비 2.10원 내린 1,071.30원에 거래를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4.61원 내린 1,003.04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71.00	1073.80	1068.70	1071.30	1071.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03.57	1004.67	994.43	997.59

금일 전망	금일 환율은 1,080원선 부근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차츰 상승폭을 좁힐 것으로 예상
--------------	--

금일환율은 1,080원선 부근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차츰 상승폭을 좁힐 것으로 전망된다. 전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전영업일 종가 보다 10.40원 오른(스왑포인트 고려) 1,081.25원에 최종호가되었다. 지난 밤 미 연준 파월 의장의 미 경제 낙관론 및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으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9%를 넘고 달러 인덱스는 90 레벨을 회복하였으며, 환율이 급등하였다. 지난 밤 영향을 받아 금일 서울환 시장에서도 달러화가 강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하락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주식 순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험선호도와 증시 외국인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1,080원선으로 오를 때 월말 네고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승 속도는 제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77.33 ~ 1085.33 원
------------------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4.43억원

체크포인트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40원 ↑

■ 美 다우지수 : 25410.03, -299.24p(-1.1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0.4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9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